

화순군, 2년 연속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

바이오산업 선도 국가백신바이오산업 중심도시 부문

"국가 침복단지 유치해 바이오메디컬 거점 자리매김"

화순군이 4일 서울에서 열린 '2022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국가백신바이오산업 중심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는 소비자 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분석 그리고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여 고객신뢰도 1위와 미래 가치가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했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관하고 산업통상

자원부, JTBC가 후원한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지난 2010년 특구 지정 이후 연구 개발과 전임상·임상시험, 제품화, 인증, 생산제조 등 백신·생물의약품 개발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며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민선 8기에는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핵심 정책과제로 정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 고도화, 국가 침복단지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29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기반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80억)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구축(430억)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442억)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200억) ▲바이오센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320억)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150억) ▲치료백신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87억) 등이다.

첨단복합산업단지에는 면역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과 실험·생산기반인 첨단 신약 개발지원센터, 첨단 신약 생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국가 침복단의료복



합단지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진행

곡성군이 올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국가유공자 63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3.1절 등 국가기념일에 매년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곡성군에서 국가유공자 470명의 가정이 명패를 달았다. 명패는 태극을 남색 컬러로만 간결하게 표현하고 순환하는 역동성을 품고 있는 모양에 햇살의 이미지를 더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표현했다.

군 관계자는 "8월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



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오는 16일까지 구례학사 입사생 8명 모집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소 둔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구례군은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구례학사에 입사생 8명(남·여)을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출신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구례학사는 서울 대림동에 소재한 대학(원)생의 기숙사로 2020년 이전개관 후, 1인 1실 원룸형

34실을 학사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위하여 스터디 룸, 컴퓨터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사생 신청자격은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대학원의 신입·재학생으로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성적 및 생활정도를 평가 후 입사생으로 선발되면 8월 말 학사에 등록 후 생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061-780-222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대학(원)생들의 보금자리인 구례학사는 지하철 2.7호선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입사생들에게 학업 편의시설을 제공 중에 있으며 구례학사 입사생 모집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대형 건물·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완료'

다중이용시설 등 냉각탑수·급수시설 11개소 대상... 철저 관리 방침

장성군이 4일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마무리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급 감염병인 급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균이다. 건물의 급수 시설이나 냉각탑수, 목욕탕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해 공기 중에 떠돌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기침, 복통, 설사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면역이 취약한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폐렴으

로 번져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장성군은 최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 등 11개소의 냉각탑수, 급수시설 냉온수 등을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 청소와 소독, 재검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 증식을防患未然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나주시, 민·관·군 참여 농촌사랑 일손돕기 추진

광주제1전투비행단 공군부대·농협 나주시지부 등 50여명 구슬땀

나주시가 민·관·군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영농 현장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는 4일 다시면 고추농가 등 4개 지역에서 광주제1전투비행단 공군부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고령농가를 선정, 적기 영농을 위한 군부대의 긴급인력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여기에 농협 나주시지부 직원들과 시정 공무원들이 합세해 50여명이 고추수확과 과수원 빗길 깔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나주=송준표기자

다시면 고추농가주 이 모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워 고추 수확에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군인과 농협직원, 공무원들이 함께 일손을 보태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성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무더운 날씨에 일손 돕기에 참여해준 군부대 장병들과 농협 임직원들의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기 영농을 위한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